

지역 매 아리

새만금지평선 마라톤대회 개최

제17회 김제새만금지평선 전국마라톤 대회가 지난 3일 지평선의 고장, 새만금 중심도시 김제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Half(21.0975km), 10km, 10km단체전(4인 1조), 5km, Half/10km 마니아 종목으로 구성돼 약 4,000여명이 참여했다.

문화체육관광부지정 대한민국 글로벌 육성축제로 선정된 김제 지평선 축제를 알리는 이번 마라톤대회는 명실상부 전북도를 대표하는 달립이들의 축제 한마당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가운데, 최다 단체상에는 '전주러너스클럽'이 Half, 10km종목에 총50명이 참가해 수상했고, 최고령상은 하프코스 참가자 1940년생 '유희식' 씨가 수상해 달립이들의 모범이 됐다.

또한 참가자들에게는 다양한 먹거리와 함께 안내책자, 배번호, 완주메달, 기록 칩 및 온라인기록증(5km 제외)이 제공됐으며, Half와 10km 참가자들에게는 지평선 햅쌀(10kg), 5km 참가자들에게는 티셔츠가 기념품으로 제공돼 큰 호응을 얻었다.

이번 마라톤대회는 김제·부안 국회의원 김중희 의원과 국립농업과학원의 이용범 원장 등 많은 내빈이 참석해 대회를 더욱 빛내주었고, 국민 마라토너 이봉주 선수가 참여해 참가자들과 함께 10km를 달리고 팬사인회를 개최하는 등 성공적인 대회로서의 면모를 과시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막 오른 김제지평선축제 이목

5일간 전통농경문화 대향연
5개분야 66개 프로그램
가을날 잊지못할 감동 선사

제20회 김제지평선축제가 5일부터 9일까지 5일간 하늘과 땅이 만나는 황금들녘의 비경 '지평선(horizon)'을 배경으로 농경문화의 산실 김제 벽골제에서 성대하게 열린다.

올해로 20회를 맞이하는 김제지평선축제는 '가을엔, 오감(五感)만족, 오라(五樂)축제!'라는 슬로건으로 5개분야 66개 프로그램으로 구성해 새로운 즐거움과 잊지 못할 감동을 선사하는 백 한가지 체험, 백 한가지 즐거움을 준비하고 관광객을 맞이한다.

제20회 김제지평선축제는 2018년 글로벌 육성축제로의 도약과 함께 아시아엔이, 러시아엔이를 운영해 그동안 축제장을 찾은 외국인에게 우리의 전통 농경문화를 소개하는 차원을 넘어 지평선축제를 찾아온 국내 관광객에게 외국 문화를 접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으며, '글로벌 지평선 쿠궁 클래스', '지평선 쌀장정 한반도기 만들기', '도전!



김제지평선축제의 '벽골제 전설 쌍룡놀이' 자료사진

2033 글로벌 제기차기' 등 외국인과 함께하는 프로그램도 풍성하다. 또한 김제지평선축제 하면 빠질 수 없는 '벽골제 전설 쌍룡놀이', '풍년기원 입석줄다리기', '벽골제 쌍룡 햇불퍼레이드' 등 3대 킬러콘텐츠는 대동성을 가미해 프로그램 완성도를 높였다.

특히 올 축제에서 빠질 수 없는 불거리로는 도내 최초로 대한민국 공군 블랙이글스 에어쇼가 지평선 가을 하늘을 수놓아 환상적인 장관을 연출할 예정이며 벽골제를 밝히는 달빛 미러볼로 어디에서도 볼 수 없었던 아름다운 지평선의 밤을

선물하고, 벽골제 소원한지름, 희망 LED풍선 날리기, 지평선 등불과 같은 야간 프로그램으로 불거리를 풍성하게 준비하고 관광객을 맞이하고 있다.

박준배 시장은 "올해로 20회를 맞는 김제지평선축제는 20년 동안 보내주신 변함없는 관광객의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김제시민이 한마음을 한뜻이 돼 정성스런 손님맞이 준비로 최고의 축제로 준비했다. 김제지평선축제장에 오셔서 평생 잊지 못할 가을날의 멋진 추억을 만들고 가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 새만금 공동발전 범시민위원회의 4일 정기총회 및 새만금사업 설명회를 개최한 가운데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새만금 김제 뭍 찾기' 역량 발휘 나서

김제 새만금 단체 정비
정기총회·사업 설명회

새만금 김제 뭍 찾기를 위해 2008년 12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새만금 공동발전 범시민위원회의 임원진과 위원을 정비함에 따라 정부정책 지원과 새만금 김제지구 개발 사업의 조속 추진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질 전망이다.

지난 4일 새만금공동발전 범시민위원회 정기총회에서 강신도 위원장과 양해건 사무국장이 선출됐고 새만금 사업에 대한 동영상 시청과 설명회를 개최함으로써 위원들의 이해를 높이고 단체 활동 범위를 확대해 새만금 개발과 행정구역 관할권에 대한 시민 운동 방향을 설정하고 나섰다.

이날 사업설명회에서는 새만금 내부 개발 사업인 신항만 사업, 공공주도

선도매립 및 수변도시 조성, 동서 및 남북도로 건설, 농·생명용지 조성, 수목원 조성, 마라나하 조성 등 구체적인 진행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이 설명됐다.

또한 정부의 목표 수질 달성과 재생에너지 정책 지원에 대한 논의를 갖고 정부정책에서 재생에너지 발전 시설뿐 아니라 연관 제조, 연구시설의 집적화가 이루어지고 새만금 지역 지자체 발전을 위한 정부지원이 이뤄지길 기대했다.

박준배 시장은 그동안 새만금 개발의 행정경력을 토대로 정부정책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정부정책에 김제시 미래 발전의 초석을 마련할 수 있도록 많은 정책을 반영시키고 현재 진행되는 사업의 속도감을 높이는 데 모든 역량을 발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제=곽노태 기자

DHA 창의공작교실 참가자 모집

완주군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DHA 창의공작교실'을 참가자를 모집한다.

완주군 창업보육센터 무한상상실은 전북지역 초등학교 1~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초등학생의 창의력 증진에 도움되는 DHA 창의공작교실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을 길러주는 방법으로 알려진 트리즈(TRIZ)기법을 활용한 것으로 학생들은 미션을 해결함으로써 흥미를 느끼고 즐길 수 있다.

'TRIZ 보물을 찾아라!', 'TRIZ 섬에서 탈출하라!'라는 목표를 가지고 오감 관찰활동, TRIZ 발상법 이해 및 체험, 레이저 커팅기를 이용한 공작 활동을 통해 해결해 나가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모집은 전북지역 초등학교 1~3학년 학생 40명을 대상으로 하며, 오는 19일까지 선착순 모집한다. 프로그램은 20명씩 2기에 걸쳐 진행된다.

자세한 사항은 완주군 창업보육센터 홈페이지 및 완주군 창업보육센터(290·2487, 2488)에 전화문의 후 방문 접수하면 된다.

/완주=이종복 기자

완주군, 지자체 종합경쟁력 으뜸도시 입증

전국 상위 10위권 내 기록 '도내 유일' 성적

완주군이 한국지방자치경쟁력지수(KLCL)에서 종합경쟁력 전국 4위를 기록, 전국 으뜸도시임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

특히, 이번 한국지방자치경쟁력지수 평가에서 완주군은 도내에서 유일하게 전국 상위 10위권 내에 이름을 올렸다.

4일 한국공공자치연구원(www.klcl.com)이 발표한 '2018년 한국지방자치경쟁력지수(KLCL)'에 따르면 완주군은 전국 기초(시·군·구) 평균점수(478.9점)를 크게 웃도는 총 531.95점으로 전국 군 단위 전국 4위에 선정됐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의 척도를 확인할 수 있는 경영활동부문은 전국 군

단위 2위의 기록을 세웠다. 이는 320만명 규모의 산업단지를 집적화해 새로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다양한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을 활성화 시키는 등 지역특성에 맞는 일자리정책이 주요했기 때문이다. 실제 완주군은 경제 활성을 촉진해 1인당 GRDP(지역내총생산) 전국 1위(2015년 기준 4,775만원)를 기록했으며, 이번 평가에서도 고용여건, 산업수출, 제조업 활성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소득과 삶의 질' 높은 15만 완주시 대도약을 균형목표로 삼고, 일자리·삶의 질·농업농촌 활성을 꾀하면서 인적자원 확보에 성공, 경영자원 부문(전국 8위)에서도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전주매일 홈페이지 www.jmaeil.com

특히, 인구활력 지표에서 두각을 나타내 65세 이상 고령자 대비 14세 이하 비율, 60세 이상 고령자 대비 20~39세 여성인구 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공공자치연구원 관계자는 "완주군은 15만 자족도시 기반 구축과 지방분권 주민 참여형 행정서비스 강화, 지역균형발전 추진, 아동안전 체계 구축을 통해 균형 있고 안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며 "빠른 시기 10만 시대를 개막하고, 전북 4대 도시로 발돋움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평가했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이번 한국지방자치경쟁력지수의 평가는 완주군의 경쟁력이 전국 최고 수준임을 다시 한 번 입증 받은 것으로, 앞으로 주민들의 소득과 삶의 질 향상에 더욱 노력을 기하하겠다"고 밝혔다.

/완주=이종복 기자

코스모스 꽃길 장관... 전국 명소 우뚝

김제시 전역 가로경관 조성

김제시 전역에 펼쳐지는 4백리길 코스모스 꽃길이 하늘과 땅이 만나는 지평선 축제장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널리 알려지면서 전국 명소가 됐다.

김제시는 금년도에도 황금들녘과 어우러지는 코스모스 꽃길을 광활한 들녘 중심을 통과하는 주요 도로 등 161km에 풍성하고 아름다운 가로경관을 조성함으로써 지평선 축제장을 찾아오는 관광객의 기억에 영원히 간직할 수 있는 고향의 정취를 주는 추억의 거리로 축제의 분위기를 한껏 띄우고 있다.

여름철 폭염과 가뭄을 이겨내고 지난주부터 꽃망울을 터트린 코스모스 향연은 색깔이 더욱 진하고 선명해 어느 곳을 달리든 코스모스 일색으로 장관을 이루고 있으며 지평선축제와



더불어 김제를 대표하는 코스모스 꽃길로 이름을 알리고 있다.

따라서 5일부터 9일까지 전국에서 김제지평선축제를 찾는 관광객에게 가을의 진한 정취감을 느낄 수 있는 코스모스 꽃길이 10월 여행의 맛을 한층 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금 김제를 찾으면 청명한 가을하늘 아래 활짝 핀 코스모스길을 따라 가벼운 마음으로 지친 마음까지 치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제=곽노태 기자

Advertisement for 'Hongsamju' (홍삼주) featuring ginseng and traditional Korean dishes. Text includes '대한민국 홍삼 특구 진안고원' and '세계주류품평회 금상'.